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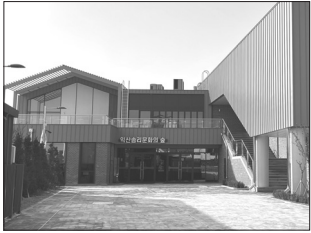
'익산습리문화의 숲' 개관

1층 시민 커뮤니티 공간·2층 화랑·소극장 마련
'인화동의 변화와 미래' 전시회... 8월 29일까지

문화도시 익산시가 인화동에 '익산 습리문화의 숲'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 익산시는 10일 시민들의 문화 휴식처이자 지역 예술가의 창작공간이 될 '익산습리문화의 숲'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습리문화의 숲은 인북로12길 28에 부지면적 2,111㎡, 연면적 1,565㎡ 규모로 지상 2층에 걸쳐 조성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7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복합문화공간인 익산습리문화의 숲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1층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책을 읽



문화도시 익산시가 인화동에 '익산습리문화의 숲'을 열고 지역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

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책다방'과 소규모 모임과 주민들의 소통공간 '삼삼오오 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가족 휴게실'이 마련돼 누구나 방문해 여유를 즐길 수 있다.

2층은 익산 예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습리 화랑'과 연극·무용·영화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습리 소극장'이 조성됐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의 장을,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고품격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개관식과 함께 인화동의 변화와 미래를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시 '습리에서 인화까지 - 과거, 오늘 그리고 내일'가 열려 지역 예술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오는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익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익산에서 활동하는 원로부터 청년 작가까지 총 40명이 참여했다.

익산습리문화의 숲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14일부터 '주4일 출근제' 시행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대상가족친화 문화 확산 기대

익산시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공직 내부부터 변화를 시작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분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다. 민원 업무 특성상 시민 응대가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제외된다.

현재 주 1회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익산시 전체 대상 직원의 약 37%인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 초기 60여 명이 주4일 출근제를 활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해 하루를 휴무로 전환하는 '휴무형 주4일제' 형태다. 대상 직원은 주4일 정식 출근 시 정규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중 하루는 육아 전담을 위한 휴무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8세 이하의 폭넓은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알육 스트레스 감소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배달의 명수 개선·농촌유학 활성화·제2야구장 건립 등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10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공배달앱으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2020년 출범했지만, 이후 운영 성과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으로 △민간 플랫폼 수준의 소비자 편의 기능 도입 △소상공인 중심의 관리자 시스템 구축 및 라이더와 상시연계 △지역 대학 청년 및 관광객 대상 마케팅 강화 △주문 건수 달성 가맹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교육발전을 위한 제언 시리즈 중 세 번째로,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농촌유학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전역에서 농촌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204명까지 늘었지만, 군산시는 입피면 출신초 단 한 곳만 선정되었고 농촌 유학생이 3명이며 25년 4월 현재 총 학생수는 유학생 포함 14명이라고 했다.

이어 농촌유학생이 없었다면 해당 학교는 폐교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산의 폐교는 이미 15곳에 달하며, 농촌 유학생 유치에 나서 폐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종삼 의원은 군산시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야구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야구 명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규 야구장은 1989년 조성된 월명종합경기장 야구장 하나뿐이라며, 그마저도 제2구장이 없어 전

국대회 유치나 야구도시로서의 활약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야구 명문도시라는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월명종합경기장 제2야구장 건설, 금강야구장 보전, 리틀야구장 재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카페리호 항로가 주민공청회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전제될 것을 촉구했다. 선유2구 정박지 선정은 선유도·무녀도 등 후보지에 대한 주민 공청회 없이 추진된 절차로 정당성과 적법성을 결여한 무효라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정식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해상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일 의원은 새만금신항과 관련, 전북자치도는 해양수산부에 새만금신항 무역할 지정과 관련 명확하고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인트 무역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즉각 추진할 것과 전북자치도는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와 함께 도의 명확한 입장을 즉시 해양수산부에 공문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식 의원은 조례(死文化) 방지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전부서에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를 도입하여 조례 제·개정 후 이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 △조례안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성실히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것, △조례 관련 업무가 인수인계 시 누락되지 않도록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두 인수인계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제7회 한-중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행사' 성황리 마무리

군산시·웨이하이시 주최, 전자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협력체계 구축위해 마련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컨벤션홀 2관에서 개최된 한중(군산시·웨이하이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행사가 군산과 웨이하이시의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에 군산시 주최로 웨이하이시에서 개최한 '특송 화물 통관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홍보 설명회(포트 세일)'의 후속 행사로 웨이하이시 상무국에서 전자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란 국내외 전자상거래(e-commerce)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직접 등록 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총 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양 도시의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수·출입 무역 교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협력의사를 확립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본 행사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산과 웨이

하이시 간의 특송 물류가 활성화되어 군산항이 서해 중부권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웨이하이시의 관계자 또한 "이번 협력은 세계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양 도시가 꾸준히 협력하며 상호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발전·활성화 '맞손'

국립군산대학교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8일 새만금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 교육혁신처장 등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개발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

다.

이번 협력은 글로벌 Co-캠퍼스 구축, 새만금 사이언스 파크 조성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군산대와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관련 사업

의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 교류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지역발전 및 상생 협력 방안 등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등을 비롯해 새만금 사업 발전과 대학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장관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가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여, 국내 대학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장관상은 매경미디어그룹과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국립군산대는 혁신적 교육 환경 제공, 다양한 복지 지원, 지역 사회와의 상생 등 공공성과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받았다.

특히 전국 360여 개의 대학 중 국립군산대를 포함해 단 두 곳만 이번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립군산대는 지난 2024학년도부터 △3무(無) 기반 모집단위 간 이동제도 △채용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교육체계 등 획기적인 교육 방식을 시행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극대화하고, 기업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사랑장학재단, 진로

진학 1:1 맞춤형 상담 운영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2025년 진로·진학 상담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진로진학 상담 사업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는 △학교장 추천 △온라인 접수 △학교박정소년센터 추천 3가지 방식으로 하면 된다.

학교장 추천은 각급 학교에 배정된 인원을 바탕으로 추천을 받고, 온라인 접수는 고1~고3 학생 중 희망자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입시정보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익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은 익산지역 중 3~고3까지 학생 총 47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쪽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지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토문화전자대전